

外感熱病辨證

1). 概要

- 外感熱病은 外邪가 人體를 侵入하여 發熱을 주로 發生시키는 疾病
- 傷寒과 溫病을 包括.
 - ① 傷寒 : 寒病因에 의한 六經辨證을 바탕으로 함
 - ② 溫病은 熱病因에 의한 衛氣營血辨證을 基礎로 함
- 外感熱病의 基本的인 特性
 - ① 發熱 : 人體의 正氣와 病邪가 激烈하게 鬪爭하는 過程에서 나타나는 現象
 - ② 病程有特定的 段階性 : 發病期, 熱性期(熱盛期), 恢復期の 三段階.

2)六經辨證

- 六經辨證施治: 內經 <素問熱論>에서 始作되어 <傷寒論>에서 確定
- 六經이란 : 太陽病, 少陽病, 陽明病,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
- 六經病證의 特點:
 - ① 太陽病의 特點은 表寒 : 正氣旺盛하고 抵抗力 강한 발병 초기의 단계
陽明病의 特點은 裏熱裏實 : 正邪의 相爭이 亢盛한 상태
少陽病은 邪가 半表半裏 : 太陽病과 陽明病의 中間 類型
太陰病은 寒傷脾陽(裏虛寒證) : 陽明主證과 相反되며 正氣衰한 狀態
少陰病은 心腎虛衰와 全身虛弱(虛寒證爲主) : 正氣가 극도로 쇠한 단계
厥陰病은 裏虛와 寒熱錯雜. : 질병의 終期
 - ②三陽證(太陽, 陽明, 少陽證)은 熱證과 實證이 主
三陰證(太陰, 少陰, 厥陰證)은 虛證과 寒證 多, 또한 虛熱證과 寒熱錯雜證
 - ③ - 傳經 : 太陽病 발생 후에 他經에 전하여 지는 병
- 合病 : 2개 陽經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
- 兩感 : 陽經과 陰經이 동시에 출현하는 것
- 本經自發 : 陽經에서 발병할 때 太陽病없이 바로 陽明證, 少陽證을 나타낸 것
- 直中 : 三陰證이 바로 출현, 즉 三陽經 통한 傳變 없이 바로 陰證이 출현한 것.
- 并病 : 한경의 증후가 아직 풀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경의 증후가 나타난 경우(先後의 구분) 즉, 少陽陽明并病

■ 六經病提綱

太陽病	太陽之爲病 其脈浮 頭項強痛 而惡寒
陽明病	陽明之爲病 胃家實也
少陽病	少陽之爲病 口苦 咽乾 目眩也
太陰病	太陰之爲病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 若下之 必胸下結硬
少陰病	少陰之爲病 脈微細 但欲寐也
厥陰病	厥陰之爲病 消渴 氣上撞心 心中疼熱 飢而不欲食 食則吐蛔 下之利不止